

朝鮮時代 閨房文化와 針線小品에 관한 연구*

이 미 석** · 이 선 재***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Kyubang Culture and Sewing Craft-works in the Chosun Dynasty

Mi-Seok Lee** · Sun-Jae Le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2. 9. 23 투고)

ABSTRACT

Recently, we consist in the crucial juncture have to develop culture goods which is worth standing for our nation's endemism. In this vein, this study tried to reproduce and apply it to the present time by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kind, the use and the fabrication of sewing craft-works was beloved in women's quarter called Kyubang in the Chosun dynasty. With this,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velop craft-works which can make an appeal to foreigners with the merits between contemporary factor and traditional factor.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ince economic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was based on home handicrafts and self-sufficiency, it was a commonplace of the Chosun dynasty that home industry such as sewing, spinning and sericulture was thriving among all the women without social ladder. And also, since women of the day were governed by confucian tradition and moral obligation, they mainly have to live in women's quarter called Kyubang restricted to visitors. For the reasons, Wives of the time have no choice but to spend their time by sewing in the promotion of virtues for woman. In additions, they made an effort to pray for the longevity, the wealthy and the fertility of their family members.

Second, the sewing instruments is necessary for women's sewing. And also, since sewing instruments was considerably scientific, efficient in those shape and structure, this instruments could save wives a lot of trouble.

Third, since many people were convinced of the functions as practicality as well as fanciness, the sewing craft-works were very useful to them in leading their daily life.

Fourth, the reappeared works were a total of 22, and the applied works were a total of 17.

Key Words : 閨房(규방), 閨房文化(규방문화), 針線(침선), 針線小品(침선소품)

* 본 연구는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I. 서론

현대의 산업화, 기계화된 사회에서 바느질이 여성의 노동밖으로 밀려났지만 자급자족 경제체제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침선(針線)은 여성의 절대적 영역이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바깥 외출을 금지 할 정도로 사회적인 활동이 철저히 제한되었으며, 단지 가정에서 내훈서(內訓書)를 중심으로 유교정신에 입각한 가정내 범절과 문자를 배우고 가사기술을 배우는 것이 전부였다. 따라서 여인들은 규방(閨房)에 모여 바느질과 자수를 통해 정신적 자유를 추구했다.

현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는 시점에서 복식과 공예 각 분야에서 바느질도구와 소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분야별로 조형성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규방여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각종 침선소품의 종류와 쓰임새, 제작기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제로 재현해보고 응용해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본 연구의 의의는 우리문화를 대표할만한 문화상품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요즘 전통 침선소품의 응용을 통하여 현대인의 감각에 맞고 전통적인 멋을 살릴 수 있는 공예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

본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중, 후기로 우리나라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및 유물자료를 관찰검토하였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제작기법을 알아보았다.

주자학의 유입등 유교적인 사회사상이 들어오면서 차츰 저하되기 시작된 여성의 지위는 조선시대 후기 유교윤리가 일반화되면서 '여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라하여 순종만을 강요하였고, 또 철저한 '내외법(內外法)'으로 남녀의 생활영역을 분리시켰다. 조선시대 가옥구조를 보면 안방, 사랑방으로 구별되어 '男不言內' 하고 '女不言外'라 하여 내외지별이 엄하였으며, 문밖 출입도 엄격히 제한되었다.²⁾ 특히 양반부녀의 외출은 극단으로 제한되어 외출시에는 반드시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었다. 또한 일체 외부와 절연(絶緣)하고 내방(內房)안에서 밤 늦게까지 침선(針線) 일을 하는 것이 생활이었다.³⁾ 이 시대의 여성교육 또한 가정에서 내훈서를 중심으로 가사기술(家事技術)과 유교정신(儒教精神)에 입각한 덕육(德育)이 강조되었음을 살필수 있다.⁴⁾ 몸매를 단정히 하고 깨끗이 가지며, 불평 불만하지 않고 열심히 침선방적에 종사하는 것이 그들의 할 일이었다.⁵⁾ 이것을 부인의 4덕이라 하여 찬양해 왔으니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이 다 그러한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들은 많은 시간을 침선을 통하여 부덕(婦德)을 닦는 교양으로서, 또는 가정생활과 수복(壽福), 부귀(富貴), 다남(多男) 등의 생활염원 등을 기원하고자 했으며, 또한 그 당시 염료나 옷감을 구하기 어려운데나 값이 비싸서 의복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모아 두었다가 하나의 생활용품으로 실용화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규방문화(閨房文化)는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선시대 여인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겠다.

II. 규방문화(閨房文化)

규방(閨房)이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¹⁾으로, 조선시대 여인들은 규방(閨房) 혹은 내당(內堂) 이라는 생활공간속에서 바느질과 자수 등의 작업을 통해 복식이나 소품들을 만들어냄으로서 자신들의 습씨와 섬세한 미의식을 표현하였다.

III. 침선(針線)

침선(針線)은 바늘과 실 끈, 바느질하는 행위로 처음 실용적인 목적에서 발생되었으며, 문명의 발달과 함께 복식에 필요한 장신구나 생활용품, 장식품 등에 까지 여러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있다.⁶⁾ 조선조 후기의 고서인 『弔針文』에 보면

“...누비며, 호며, 감치며, 박으며, 공그릴때에 겹실을 꿰었으니 봉미를 두르는 땀땀이 떠 갈적에 수미가 상응하고 솔솔이 붙여 내매 조화가 무궁하다...”라고 하여 침선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볼 수 있으며, 『閨閣叢書』에는 바느질과 길쌈, 수놓기, 누에치기, 옷만드는 법, 물들이는 법, 다듬질 하는 법, 빨래하는 법 등을 기록하고 있어 바느질법이 보편화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1. 침선도구(針線道具)

침선도구는 옷감을 마름질해서 꿰매어 일정한 형태를 완성시키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도구로 바늘, 실, 골무, 가위, 자, 인두, 다리미 등이 있으며, 인두질할때는 인두판과 화로가 반드시 뒤따랐다. 또한 자질구레한 침선도구를 넣어 둘 수 있는 반질고리를 비롯하여 바늘과 실을 정리할 수 있는 바늘집, 바늘쌈, 바늘꽂이 및 실첩과 각종 실패 등이 있다. 이러한 침선도구들은 침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으며 그 형태나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어서 침선의 수고를 다소나마 덜어주었으며, 처음 실용적인 목적에서 발생되었으나 점차 장식성을 가미하게 됨으로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다.

바느질이 여인의 일상 생활이었던 만큼 바느질에 필요한 규중칠우(閨中七友)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부러진 하찮은 바늘을 보고 애통하여 지었다는 『弔針文』이나, 규중칠우(閨中七友)라 하여 바늘, 실, 자, 가위, 다리미, 골무 등을 의인화해 서로의 재주를 찬양하는 소설 『閨中七友爭論記』등에서도 바느질 도구에 대한 여인들의 알뜰한 정감과 애뜻한 염원을 느낄 수 있다.

2. 침선소품(針線小品)

1) 골무

골무는 바느질할때에 바늘을 누르고, 바늘에 손끝이 찢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왼 손의 둘째 손가락 끝에 끼는 것으로 주로 감침질을 할 때나 바늘이 들어가기 힘든 옷감에 사용된다. 골무의 기능은

바늘끝의 날카로움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적이었던 것이 차츰 장식이 더해지면서 정교하게 수를 놓아 장식적인 요소가 첨가되었다.

골무의 형태는 장식이 없는 민 골무, 조각천을 이어붙인 조각 골무, 수를 놓은 수 골무등이 있다. 대부분 손가락 한 마디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기본적으로 앞, 뒤판을 따로 만들어 둘레에 명주실로 귀잡치기를 하여 연결하여 만들었다. 천 조각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낸 여인들의 지혜를 볼 수 있다.

2) 바늘집

바늘집은 바늘을 넣어 보관하는 집으로 ‘침낭’ 혹은 ‘바늘겨레’라고도 하는데⁷⁾,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바로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실용과 장식을 겸비했다.

바늘집의 형태는 대개 2개의 복숭아 모양으로 만들어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분리되는데, 아랫부분에는 바늘이 녹슬지 않게 머리카락을 넣어 바늘을 꽂게 되어 있고 끈으로 연결된 윗 부분은 뚜껑이 있어 바늘을 공기와 차단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끝에는 비단조각을 겹으로 하여 붙이거나 술을 드리워 장식했다. 그 밖에 장방형, 피불형, 주머니형, 안경집형등의 바늘집이 있다.

바늘집을 만드는 방법은 바늘을 꽂아서 보관하는 부분은 솜이나 머리카락을 넣어서 귀잡치기를 하는데, 이때 바늘을 꽂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한쪽 부분에만 뾰뾰한 종이를 배접을 해서 만든다. 이때 위쪽 부분 중앙에 천으로 만든 끈을 달며, 끈은 윗부분을 길게 해서 옷에 달수 있게 하고, 아랫부분에는 장식천을 곱게 만들어서 단다. 위 뚜껑부분은 뾰뾰한 종이를 사용해서 앞, 뒤판을 각각 만들어 끈이 나오는 구멍을 남기고 귀잡치기 해서 완성하면 된다. 바늘을 꽂는 아랫부분에 끈을 끼워 달면 완성된다.

3) 바늘꽂이

바늘꽂이는 바늘을 꽂아두는 물건으로 ‘바늘방석’이라고도 하며⁸⁾ 끈을 단 것은 인두판에 매달아 놓고 썼다. 바늘꽂이의 형태는 주로 사각형이나 삼

각형, 원형의 형태로 옷을 짓고 남은 조각천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바늘꽃이 만드는 방법을 보면, 사각형 바늘꽃이는 백지를 여러겹 두껍게 붙여 판형(板形)을 만든 후 그 위에 솜이나 머리카락 등을 넣고 화려한 색의 비단을 씌우거나 수를 놓은 비단을 씌우기도 하였다. 원형 바늘꽃이는 정사각형의 형겼조각 다섯장을 이어 붙인 후, 다시 5장의 조각을 돌아가며 이어 붙여 바구니 모양을 만든 후 솜을 넣고 실로 정거준후 밀받침을 대어 완성한다.

4) 주머니

주머니는 돈이나 소지품을 넣기 위해 대개 형겼으로 만들어 끈을 꿰어 만든 물건이다. 우리 전통 옷에는 주머니가 없었으므로 모든 소지품은 주머니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주머니는 남녀 노소,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활속에서 꾸준히 패용되었고 소원과 염원, 나아가 주술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처음에는 실용적인 면에서 따로 만들어 차게 된 것이 장식화되어, 실용적인 면과 장식적인면을 충분히 갖춘 장신구로서 발전하게 되었다.⁹⁾

주머니는 형태에 따라서 크게 염낭, 귀주머니, 약주머니형, 사각주머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염낭은 해낭(亥囊)¹⁰⁾이라고 하며 가장 흔히 쓰여진 주머니로 둥근 형태이다. 윗부분에 주름을 잡고 두 줄의 끈을 마주 꿰게 된 작은 주머니로 위는 모가지고 아래는 둥근데, 끈을 풀라매면 위가 더욱 오그라져 전체가 둥근형태가 된다. 입구의 주름은 보통 5, 7, 9, 11개 등 홀수로 접지만, 입구를 귀주머니식으로 접은 것도 있다.

귀주머니는 자낭(子囊)¹¹⁾이라고도 하며 정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를 만들어 입구부분에서 세 골로 접어 아래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된 주머니이다. 귀주머니의 특징은 닳기 쉬운(제일 마찰이 심한 부분) 양쪽 모서리인 두 귀와 중앙부 아래쪽을 따라 감싸듯이 한 겹 더대고, 그 가장자리에 곱게 상침하여 장식적 효과와 실용적 효과를 겸하고 있다.

약주머니 형태는 긴 직사각형의 천 2장을 마주대고 박아 창구멍으로 뒤집은후, 사선으로 접어 솔

기를 마주대고 겹에서 감침한 것으로 양옆 중앙에 주름을 잡아 끈을 꿰고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넘겨 접으면 뽕족한 모양의 두껍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방법으로 길게 접어 입구에 주름을 잡지 않고 끈만 꿰어 만든 필낭이나 수저집, 비너주머니 등이 있다.

사각주머니는 긴 직사각형의 천 2장을 마주대고 접어 창구멍으로 뒤집은후 양쪽에서 직선으로 접어 솔기를 마주대고 겹에서 감침하거나 사뜨기할 후 입구 부분을 접으면 뚜껍이 된다. 약주머니 접는 것처럼 만들기도 한다.

5) 보자기

보자기는 쓰다 남은 여러 가지 색형겼을 모아두는 것에서 부터 물건의 용도에 따라 싸 두는데 까지 실용성과 장식성을 겸하고 있다.

보자기의 재료는 명주, 모시, 무명, 베 등이며 싸두는 물품의 성질에 따라 홑, 겹, 누비, 솜보자기 있는데 끈의 매무새는 반 접혀 한귀에 달린 것, 중앙에 대각선으로 달린 것, 대각선상으로 양귀통이에 달린 것, 네귀통이에 달린 것, 혹은 없는것 등 다양하다. 그런데 겹, 혹은 솜보자기 중에는 끈없이 안쪽은 유지(油紙)로 꾸민 것이 있다. 이것은 상보로서 안쪽의 油紙는 음식물에 더럽혀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 상보에는 주발보와 바리보(주발은 남자용, 바리는 여자용 밥그릇) 한쌍이 곁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청·홍의 색상으로 구별된다. 즉 청색은 남자용 주발보를 뜻하고 홍색은 여자용 바리보를 뜻하는 것이다. 이들 주발보와 바리보는 밥그릇의 보온을 위한 것이므로 솜을 두툼하게 두어 모자형의 솜보로 꾸민것도 있다.¹²⁾ 누비보는 누벼서 만든 것으로, 누비 겹보는 파손되기 쉬운 기물들을 싸둔 것으로 보인다.

조각보는 형겼조각을 이어서 만든 보자기로 주로 서민층에서 많이 애용하였는데, 당시 염료와 옷감이 부족하여 보자기를 만들기 위해 따로 천을 마련하기는 힘이 들었으므로 의복등을 만들고 남은 조각천을 모아 생활용품으로 만들고 실용적으로 발달시킨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궁보중에서는 아직까지 조각보가 발견된 예가 없다고¹³⁾한다.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는 홑보와 겹보로 구분할수 있다.

홀보는 안감을 대지 않으므로 천조각을 이어 붙일 때 솔기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해 바느질법을 곱솔이나 싹솔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실의 색상은 바탕천과는 대조되는 색으로 하여 바늘땀이 걸로 드러나게 함으로서 장식의 효과를 낸 것을 볼 수 있다.

겹보는 겹감과 안감 두장을 이어붙여 만든 것으로, 겹보의 경우는 조각천을 이어붙일 때 모두 감침질을 이용하여 겹감쪽에서 바느질한 것을 볼 수 있다. 홀보와 마찬가지로 실의 색상을 바탕천과 구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바늘땀으로 장식의 효과로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홀보, 겹보를 불문하고 조각보에는 일종의 장식이라 할 수 있는 쌍밀이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다. 쌍밀이는 전체적으로 사각형 혹은 대각선을 이루는 모서리마다 달리는데 겹보의 경우 안감과 겹감을 고정시켜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 장식과 실용을 겸하고 있다 하겠다.

6) 수저집

먹는 일은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먹는 행위 자체에 지위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으니 그것의 문화적인 표현 또한 마찬가지이다. 더불어 먹는 도구인 수저는 귀중한 것이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보관했다.¹⁴⁾

첫들을 맞은 아이에게는 밥 그릇과 수저 한 벌을 마련해주었는데 수저를 손에 쥐어 주는 것은 삶의 시작을 뜻했다. 또한 여자가 혼인을 하면 밥그릇과 수저를 본인과 남편 것 뿐만 아니라 시부모의 것도 혼수로 가져온다. 즉 본인과 남편 것은 밥을 잘 먹고 백년 해로하기를 바람이며, 시부모의 것은 봉양을 잘하겠다는 표시다. 그리고 부녀자가 먼길을 갈 때 요기가 될 마른 음식을 수저집에 넣어 허리에 차고 다니기도 하였다¹⁵⁾고한다.

이렇듯 수저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수저를 넣어 두는 수저집에 십장생문, 연꽃, 모란꽃, 수복, 부귀, 다남 등의 길상문양과 문자를 수놓아 행운을 기원하였다.

7) 향집

향집은 향을 몸에 지님으로서 향기를 풍기게 하

는 귀족적인 느낌이 강한 장신구의 일종으로서, 당시 여성들의 향료이용법으로 향집이 움직일 때마다 발산되는 부드럽고 은은한 향은 한층 기품있는 멋을 돋보이게 했다.¹⁶⁾

향집의 형태는 향낭(香囊)과 향갑(香匣)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향낭이란 ‘주머니 낭(囊)’자와 더불어 쓰여진 것으로 소위 향주머니를 일컫는다. 향낭은 의복의 색채와 어울리도록 공들여 꾸민 수향낭(繡香囊)과 갑사향낭으로 구별되는데, 수향낭은 장신구로 옷 밖에 차고 갑사향낭은 겹옷 안에 차다.¹⁷⁾

향갑은 대체적으로 형태가 정형적인 상자로 되어 있고 표면이 굳거나 딱딱한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비단에 수를 놓아 마치 풀을 먹여 놓은 듯 네모반듯한 상자로 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향갑의 특징은 상하에 작은 고리가 있어 매듭의 상하단을 따로 맺고 향갑속으로는 多給(근)가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하단부가 개폐식(開閉式)으로 되어 있다.¹⁸⁾

8) 버선본집

버선을 만들기 위한 버선본을 넣어 두던 보자기로 각 식구마다 버선본을 보관하여 버선을 만들 때마다 간편하게 꺼내어 사용했다. 버선본은 장지(壯紙)나 한지(韓紙)로 만들기 때문에 찢어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때문에 곱게 보존하기 위하여 버선본집을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버선본 주머니는 장방형의 형태로 두귀는 맞대어 꿰매고 나머지 두 귀는 매듭단추를 달아 여미도록 꾸몄다.

이외에도 가위를 녹슬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던 가위집, 자를 넣어 보관했던 자집, 안경을 넣어 가지고 다니던 안경집, 담배나 부싷돌 등을 싸서 가지고 다니던 싹지, 옷이나 생활소품에 장식을 겸한 여밈단추로 쓰였던 매듭단추 그리고 옷의 트임부분이나 바느질의 이음선이 만나는 모서리에 달리는 쌍밀이 단추 등이 있다.

IV. 침선소품(針線小品)의 재현과 응용

1. 침선소품의 제작기법

침선소품 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손무명, 삼베, 모시, 견(명주, 숙고사, 운문단, 모본단, 양단)을 사용했으며, 염색기법으로는 홍화, 쪽, 괴화, 소목, 자초, 꼭두서니, 쪽, 물푸레나무, 오배자, 정향 등을 이용하여 침염 하였다. 침선기법으로는 흙질, 박음질, 감침질, 공그르기, 상침, 사뜨기, 싹술, 쌍밀이단추, 풀칠하기 등을 사용했다.

1) 염색기법

염색방법은 쪽과 홍화, 자초를 제외하고 괴화, 소목, 꼭두서니, 정향, 물푸레나무, 쪽, 오배자의 염색방법은 동일하다.

(1) 홍화

홍화 1kg을 통에 넣고 물 10L를 부어 뚜껑을 덮고 일주일정도 썩혔다. 썩힌 홍화를 망사주머니에 옮겨 넣어 묶은 다음 큰 대야에 넣고 더운물(60℃ 이하)을 부어가며 몇차례 계속해서 주물러서 황색색소를 최대한 제거했다. 노랑물이 다 빠지고 붉은스레한 물이 나오기 시작하여 탈수기에 넣고 탈수한다음 탈수한 홍화주머니를 대야에 넣고 잿물(pH10~11)을 넣어 약 5분정도 주무른다음 다시 탈수하였다. 좀더 선명한 홍색색소를 얻기 위해 잿물을 넣어 추출한 1차 추출액은 버렸다.

대야에 홍화주머니를 넣고 준비한 잿물을 부어 주물러가며 약 20~30분정도 홍색의 염액을 추출했다. 추출한염액에 오미자 우려낸 물(pH3~4)을 넣어 중화(pH6) 시켰다. 이때 홍색의 거품이 일면서 색이 깨어났다. 정련한 천을 염액에 넣고 30분간 주물러 염색하여 맑은 물에 수세한 후 그늘에 널어 말렸다.

모시나 무명에는 선명한 홍색으로 염색되었으나 명주나 견사에는 좀 황색기미가 있는 홍색으로 염색되어 같은 염액에도 소재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2) 쪽

쪽염색은 2000년 7월 26~7월 28일 경남 통도사에서 쪽 발효염색을 하였다. 발효쪽 염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시간이 여의치 않아 단계마다 미리 준비한 쪽 향아리를 가지고 염색했음을 밝혀둔다.

쪽을 베어 향아리 가득 잎과 줄기 모두를 넣고 쪽이 잠길락 말락하게 물을 넣었다. 하루가 지나자 쪽이 삭기 시작했는데, 골고루 삭을 수 있도록 뒤적거리주었다. 다 삭은 쪽을 소쿠리에 받쳐가면서 쪽을 건져내어 밑으로 떨어지는 쪽물을 다시 향아리에 넣었다. 향아리에 있는 쪽염액에 잿물을 1:1이 되도록 섞은 후(이때 pH 11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함) 긴 대나무 막대기로 저어주었다. 한쪽 방향으로 하루에 4~5번 30분씩 저어주었다. 이렇게 잿물을 넣고 섞은 후 5일정도가 지나면 발효가 되는데 자주색의 꽃거품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꽃거품이 일어난 향아리에서 염액을 떠내어 천을 넣은 후 공기와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염액속에서 손으로 돌려가며 염색을 했다. 20분정도 염색한 후 맑은 물에 헹구어 햇빛에 말렸다.

향아리에서 쪽 염액을 떠내어 처음 염색을 했을 때는 푸르스름한 옅은 청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세 번정도 반복해서 염색을 한 결과 처음보다 진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3) 자초

자초는 알코올에 의해 염액을 추출하였다. 자초 100g(적물의무게와 동일)을 그릇에 넣고, 자초가 잠길정도의 메탄올을 부었다. 가끔 뒤적거리 주면서 30분간 방치했다. 30분후 보라색의 염액이 추출되어 있었는데, 다른 용기에 염액을 따라놓고 다시 메탄올을 부어 30분 경과 후 얻어진 염액과 처음 염액을 혼합하였다. 같은 양의 증류수를 부어 잘 섞은 후 상온에서 염색하였다. 염색결과 백반매염에 의해 밝은보라로 염색되었으며, 철매염에 의해 어두운 회색빛 보라를 얻을 수 있었다.

(4) 기타

피화, 소목, 꼭두서니, 물푸레나무, 정향, 쑥, 오배자는 다음과 같이 염색하였다.

본 염색에서는 직물(100g)과 염료의 양(100g)을 동일하게 사용했으며, 백반은 직물의 5%, 철은 직물의 1%를 사용하였다.

《염액추출》

- 염료를 씻어 통에 넣고 물(2L)을 부은 다음 불에 앉혔다. 염액이 끓기 시작한 후 20분 정도 더 끓여주었다.
- 5분정도 놓아두어 염제가 가라 앉은 후 소쿠리에 무명 천(광목)을 깔고 받쳐염액을 내렸다.
- 다시 물(2L)을 넣고 끓인 다음 2차 추출액을 얻어 처음 염액과 혼합하여 염액을 얻었다.

《염색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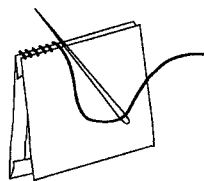
염색(15분)→수세→매염(15분)→수세→염색(30분)→수세→매염(15분)→수세→건조
 *철매염을 할때는 두 번째 매염 단계부터 철매염을 하였다.

2) 침선기법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박음질, 감침질, 꿰뜨리기, 상침, 사뜨기, 굵슬, 짚슬, 쌍밀이단추, 풀칠하기 등을 사용했다. 본 소품제작에서 쓰인 감침질, 짚슬, 상침, 쌍밀이단추 기법은 다음과 같다.

(1) 감침질

감침질은 조각천을 잇거나 끈을 만들 때 조각천의 안과 안을 맞대고 겉에서 바느질하는 것으로 바늘땀이 어긋하게 나타난다. 실이 늘어지거나 당겨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잡아당기고 땀을 고르게 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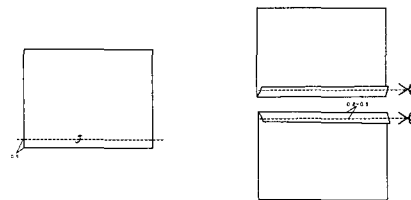
감침질

도록 한다. 이때 실 색상을 바탕천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하면 장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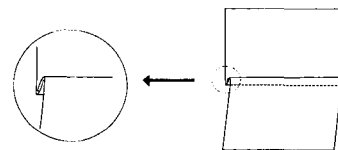
(2) 짚슬

갑사, 향라 등 얇은 옷감의 조각을 연결할 때 많이 쓰이는 바느질법으로, 앞뒤 바느질선이 똑같이 나타나 앞뒤 구별이 없다.

- 조각천을 각각 0.5cm 시점으로 접어 다림질한 후, 시접선이 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시접을 0.2cm~0.3cm 정도 더 잘라낸다.
- 시접 양끝을 서로 엇갈리도록 끼워 흠질로 시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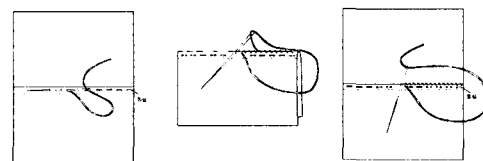


시접접기와 자르기



시접끼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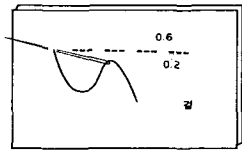
- 앞쪽 조각천을 접어 감침하고 뒤쪽 조각천을 감침한다. 앞뒤 모두 완성한후 시침실을 빼고 다림질한다. 앞뒤 바느질선이 똑같이 나타난다.



감침하기

(3) 상침

상침은 겹감쪽에서 하는 장식바느질의 하나로, 바느질방법은 반박음질과 같은 원리이나 모양이 다르며, 조각보에 두땀상침, 세땀상침을 하여 바늘땀을 장식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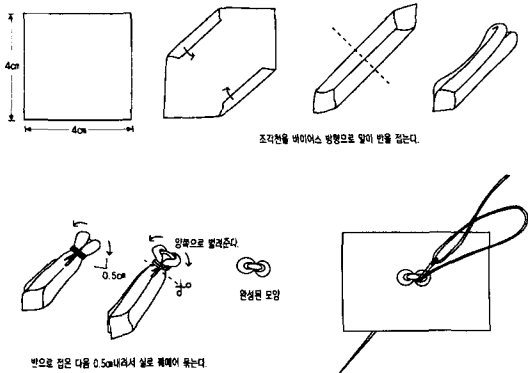


상침질

(4) 쌍밀이단추

쌍밀이단추는 주로 이음선이 만나는 곳이나 트임의 끝부분에 실용과 장식을 겸하여 쓰인다.

정사각형의 형질을 대각선으로 연결되는 양쪽끝에서 중앙을 향해 말아간다. 양쪽이 딱 마주치게 되면 반으로 접은 후 접은 중심에서 0.3~0.5cm 아래를 실로 단단히 묶고 윗부분을 양쪽으로 벌려준다. 묶고난 나머지 부분은 0.2cm 남기고 잘라낸 후 잘린 부분에 풀을 약간 발라 다리미로 납작하게 눌러준다. 필요한 위치에 흠질을 이용하여 붙여준다.



쌍밀이 단추 만들기와 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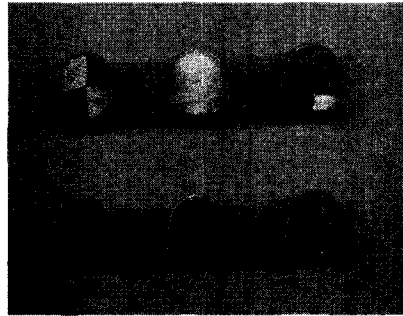
2. 침선소품의 재현

재현작품으로는 골무, 바늘꽃이, 염낭, 귀주머니,

약주머니, 조각보, 예단보, 수저집, 버선본집 등을 선정하여 총 22점을 제작하였다.

1) 골무

소재는 꼭두서니, 소목, 괴화, 쑥 등으로 염색한 명주와 숙고사를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사뜨기, 풀칠하기를 이용했다. 겹감으로 배접지를 싼후 안쪽에 안감을 붙이고 사뜨기를 이용하여 앞, 뒤판을 연결했다.



<재현작품1> 골무

2) 바늘꽃이

소재는 쑥으로 염색한 명주와 소목, 꼭두서니, 괴화, 오배자로 염색한 모시를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흠질, 시침질, 쌍밀이 단추를 이용하였다. 여러개의 조각천을 겹감에서 감침질로 이어붙인후 안쪽에 솜을 넣어 마무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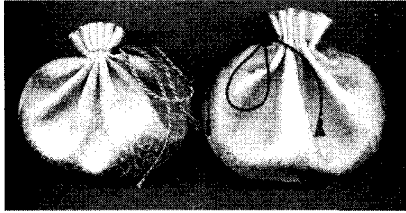
<재현작품2> 명주 바늘꽃이

<재현작품3> 모시 바늘꽃이

3) 염낭

염낭은 가장 흔히 쓰여진 주머니로 등근 형태이다. 사용된 소재로는 분홍색, 연두색 양단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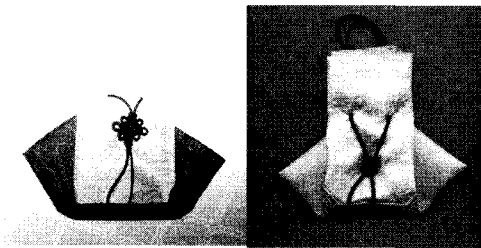
했으며,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콩그르기 등을 이용하였다. 펼쳐보면 위는 모가 지고 아래는 둥근데, 끈을 풀라매면 위가 더욱 오그라져 전체가 둥근형태가 된다.



<재현작품4> 양단 염낭

4) 귀주머니

사용된 소재는 흰색, 자주색 숙고사와 분홍, 옥색 양단을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흠질과 세뿔상침, 매듭단추를 이용하였다. 펼치면 사각형의 주머니 형태이며 위 입구 부분에서 세등분하여 접으면 아래 양쪽으로 귀가 나오게 된다.



<재현작품5>
숙고사 귀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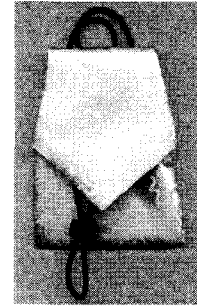
<재현작품6>
양단 귀주머니

5) 약주머니

주로 환약을 넣어 휴대했던 주머니로 만드는 방법이 특이하다. 사용된 소재는 황금색 운문단과 청색 숙고사를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흠질과 감침질 매듭단추를 이용하였다. 직사각형의 천을 겹과 겹을 맞대고 박아 창구멍으로 뒤집은 후 종이 접듯이 접어서 형태를 만든 후 겹쪽에서 감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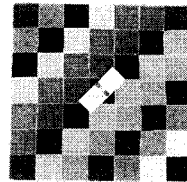
<재현작품7>
숙고사 약주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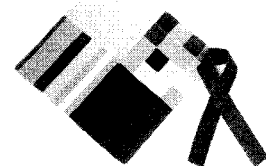
<재현작품8>
운문단 약주머니

6) 보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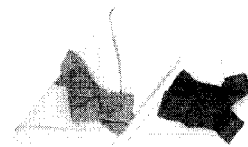
소재는 꼭두서니, 물푸레나무, 소목, 쪽, 괴화, 정향으로 염색한 명주와 숙고사를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흠질, 세뿔상침, 쌍뿔이단추 등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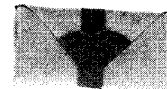
<재현작품9>
명주 조각보



<재현작품10>
명주 조각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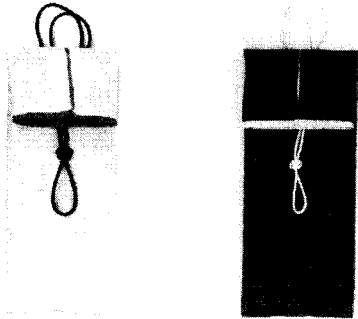
<재현작품11>
명주, 숙고사 예단보



7) 수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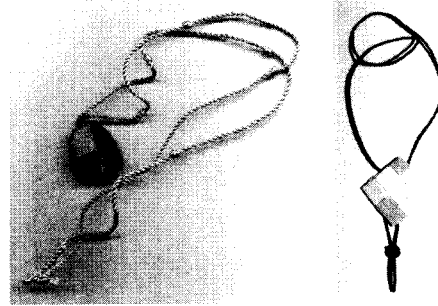
소재는 정향, 소목으로 염색한 명주와 운문단을 이용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세뿔상침, 사뜨기, 매듭단추를 이용하였다. 직사각형의 주머니 형태로 접어 사뜨기 또는 감침을 했으며, 크기는

대략 폭 9~10cm, 너비 26~28cm 정도이다.



<재현작품12> 명주, 문문단 수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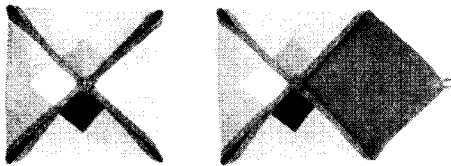
자초로 염색한 손무명이다.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풀칠하기, 사뜨기 등을 이용하였다



<응용작품1> 글무와 조각팬던트

8) 버전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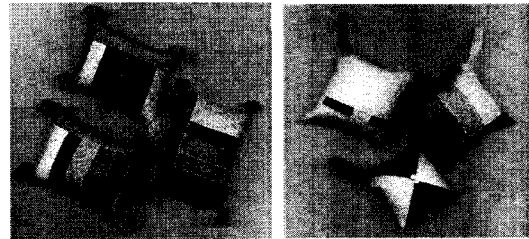
사용된 소재는 자초, 홍화, 정향, 소목, 꼭두서니로 염색한 명주이며,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감침질, 공그르기, 세땀상침, 매듭단추를 이용하였다. 정사각형의 보자기 형태로 가장자리에는 장식천을 두르고 매듭단추로 연결하였다.



<재현작품13> 버전본집

2) 조각 바늘꽃이

사용된 소재는 소목, 홍화, 괴화, 쪽, 쑥, 정향, 꼭두서니로 염색한 명주이며,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흠질, 시침질을 이용하였다. 안에는 솜을 넣고 고리 또는 술을 매달았다.



<응용작품2> 조각바늘꽃이

3. 침선소품의 응용

응용작품으로는 조선시대 침선소품에 쓰였던 소재, 염색기법, 침선기법 등을 응용하여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품을 제작하였다. 글무와 조각팬던트 목걸이, 조각 바늘꽃이, 주머니, 가방, 스카프, 보자기 등 총 17점을 제시하였다.

1) 글무와 조각 팬던트 목걸이

조각천을 감침질 기법으로 연결하여 글무와 조각팬던트를 만들었다. 사용된 소재는 쪽, 쑥, 소목으로 염색한 명주이며, 조각팬던트는 정향, 홍화,

3) 다용도 보자기

사용된 소재는 쪽, 홍화, 괴화, 꼭두서니 등으로 염색한 명주와 숙고사 이며, 침선기법으로는 감침질, 흠질, 세땀상침 등을 이용하였다. 요즘은 선물을 돈으로 대치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돈을 정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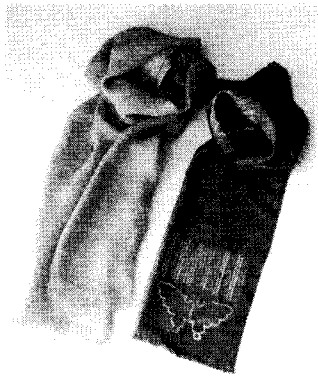


<응용작품3> 다용도 보자기

여 보자기에 싸서 예의를 표한다거나, 상품권보로 이용하면 좋을듯하다.

4) 스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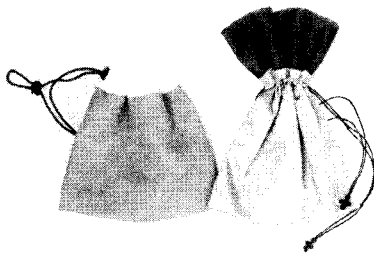
사용된 소재는 쪽두서니(백반), 오배자(철)로 염색한 망사실크와 명주이다. 오른쪽 오배자 스카프에는 홀치기 기법으로 나비 문양을 나타내었다. 끝 마무리는 울을 풀어 마무리 하였다.



<응용작품4> 스카프

5) 다용도 주머니

서로 재질이 다른 느낌을 주는 감사와 모본단, 향라와 모본단으로 만들어 재질감의 조화를 이루어 보았다. 침선기법으로는 흠질, 박음질, 공그르기 등을 이용하였다.



<응용작품5> 다용도 주머니

6) 면을 응용한 가방

사용된 소재는 쪽두서니, 쪽, 홍화로 염색한 면

을 이용하였다. 왼쪽가방은 쪽두서니로 염색한 면을 여러겹 겹쳐박은후 사이사이를 가위로 잘라 올풀기 기법을 이용하여 모피의 느낌을 낸 가방이다. 오른쪽 작은 가방은 생쪽과 홍화로 염색한 면으로 만들었다.



<응용작품6> 면을 응용한 가방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조선시대 규방여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각종 침선소품의 종류와 쓰임새, 제작기법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실제로 재현해보고 현대적으로 응용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시대는 가내생산(家內生産)과 자급자족 경제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여성들은 유교적, 도덕적 관념의 지배를 크게 받게 되어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관계로 자연히 규방(閨房)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부덕(婦德)을 쌓으며 지혜와 인내로서 생활해나갔다. 따라서 침선소품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둘째, 침선에 쓰인 도구들은 침선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으며 그 형태나 구조가 매우 과학적이고 능률적이어서 침선(針線)의 수고를 다소나마 덜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침선소품의 종류로는 골무, 바늘집, 바늘꽂이, 주머니, 보자기, 수저집, 향집, 버선본집, 가위집, 자집, 안경집, 매듭단추, 쌍밀이단추, 찜지, 열쇠

패 등을 볼수 있었으며, 이러한 침선소품류들은 실용적인 용도 뿐만아니라 장식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여졌음을 알수 있었다.

넷째, 침선소품의 재현과 응용에서는 재현작품 총 22점, 응용작품 총 17점을 제시하였다. 작품제작에 사용한 소재로는 손무명, 삼베, 모시, 견(명주, 숙고사, 갑사, 양단, 운문단, 모본단)을 사용하였다. 염색기법으로는 홍화, 쪽, 괴화, 소목, 자초, 쪽두서니, 빈랑, 정향, 물푸레나무, 쪽, 오배자 염색을 하였으며, 침선기법으로는 흙질, 박음질, 시침질, 감침질, 공그르기, 상침, 사뜨기, 곱술, 싹술, 쌍밀이단추, 매듭단추, 풀칠하기 등을 사용했다.

현재 인사동의 전통소품전문점들과 곳곳의 문화상품 판매점에서는 한국의 전통문양이나 소재를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 전시 판매하고 있으며, 외국 관광객들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젊은층에서의 큰 관심과 호응을 볼 수 있었다. 이렇듯 국가의 이미지와 상품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화상품은 그 나라의 가치관이나 문화 등의 정서를 포함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전통문화와 생활용품의 접목은 단순한 전통의 계승만이 아닌 전통의 재창조라는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디자인 개발을 통해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코리아니즘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며, 또한 상품 기획이나 유통, 판매 등 전략적 마케팅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기문 감수(2001). *동아새국어사전*. 서울: 두산동아, p.320.
- 2) 아세아여성연구소(1976). *이조여성연구*. 서울:속대출판부, pp.176~181.
- 3) *위의 책*, p.162.
- 4) 李時鎔(1983). 朝鮮朝 士大夫의 閨房教育. *인천교대의 문집*, 11, p.40.
- 5) 김종택(1984). *조선의 여인*. 서울: 문화출판사, p.180.
- 6) 石宙善(1971). *韓國服飾史*. 서울: 寶晉齋, p.1.
- 7) 金美子(자문·해설)(2001) CALENDER. *삼성생명*, 9월.
- 8) *위의 책*, 6월.
- 9) 이미석(1994). 향(香)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4.
- 10) 최남선. *朝鮮常識*. 風俗篇: 재인용, 유희경(1991).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68.
- 11) *위의 책*, p.368.
- 12) 허동화(1988). *옛보자기*. 서울: 한국자수박물관 출판부, p.275.
- 13) 허동화(1997). *우리규방문화*. 서울: 현암사, p.289.
- 14) 한영화(1999). *전통자수*. 서울: 대원사, p.108.
- 15) 허동화. *와의 책*, 1997, p.118.
- 16) 이미석. *와의 책*, 1994, p.115.
- 17) *위의 책*, p.44.
- 18) 유희경(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 이대출판부, p.365.